

## 내 아이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핵가족 아이들은 자녀 양육 경험이 없는 '초보 부모'와 사는 셈이다. 초보들과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신세대 부모들은 걱정이 많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거르지 않고 또박또박 지적한다. 한번 봐줄 법한데도 나중을 생각해서, 습관이 될까 봐 그런단다.

자녀들은 학교 생활, 과외 공부, 부모의 높은 기대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다. 부모에게 하소연해 보아야 소용없는 일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마음놓고 하소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야단맞는 순간에 어디

선가 해성같이 나타나서 위기에서 구해 주곤 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는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은 중재자이다. 자식에게는 엄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에게는 너그럽기 때문이다.

중재하며 부모에게 말할 레퍼토리도 많을 것이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너 자랄 때와 똑같다." "너보다 몇 배 낫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까이 살지 않으면 다른 중재자라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중재자는 아무라도 좋다. 자녀의 고충을 들어 주고, 부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고, 간혹 자녀가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항상 편들어 주는 사람이면 된다.

중재자의 존재는 자녀의 지도자 자질 훈련에 매우 필수적인 요인이다. 걸출한 업적을 세운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대개 그들을 무조건 믿고 성원해 주었던 부모가 있었고, 항상 그들을 성원해주는 중재자가 있었다.

편들어 주는 중재자만 있어도 자녀들은 훨씬 활기찬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자신감은 도전 정신을 높여 주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소신으로 발전한다. 지도자의 덕목이다.

적대국 관계인 대통령들도 비상시 대화 통로인 핫라인(Hot

line)을 만들어 놓는다. 제3국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 오해를 풀고, 명분 있는 화해를 모색한다. 부모들도 국가 원수들처럼 중재자를 내세워 자녀들과의 간접 대화, 화해, 의기투합의 새로운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야단은 쳤지만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서 더 야단쳤다더라.” “야단치면서 무척 가슴 아팠단다.” 이런 얘기를 중재자로부터 전해 들은 자녀들은 많은 오해가 풀릴 것이다. 야단맞고도 양금이 없을 것이다. 야단맞고도 곧 부모에게 덤석 안기는 감동을 연출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뒷날 큰 그릇이 될 아량과 포용력의 기본 소양을 마련해 준다.

### 지도자의 자산은 네트워크

3학년 수업 시간에 매년 실시하는 행사가 있다. 학생들에게 약 5분간 시간을 줄 테니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가능한 한 많이 써 보라고 시킨다.

학생들은 대개 50명 안팎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

그 다음에 같은 과 학생 이름을 지우라고 요구한다. 순식간에 30명 가까운 이름이 지워진다. 학교 동아리, 고교 동창, 학원 친구들 이름도 지우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난 후 종교 단체, 취미 클

럽 친구도 지우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소원한 이성 친구 이름도 지우라고 한다. 부모님들도 자녀와 함께 이런 평가를 한번 해 보기 바란다.

대부분의 경우 3~4명 미만의 이름만 남는다. 학생들에게 이 조사의 목적을 이야기한다. “학우와 동창 이름을 빼고 나니 너희는 20여 년 동안 결국 3~4명도 못 되는 친구를 사귀며 지낸 셈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연령층간의 협력, 분야간의 협력, 전문가간의 협력, 국가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늘어나는 시대이다.

같은 전공, 비슷한 환경, 비슷한 지역에서 학교를 오가며 비슷한 또래들만 사귀다면 너희들은 미래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 학생들의 표정이 시금털털하다.

중, 고교 시절 나는 과외 활동으로 운동부에 들었다. 이 과정에서 가끔 학교를 찾아오는 졸업생 선배들도 만나 알게 되고, 운동부 주장 주변의 선배들도 알게 된다. 합숙하는 일이 있으면 같은 경기 종목의 협회 임원,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가까워져 교류 대상의 폭과 깊이가 발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써 보라고 했다면 다 지우고도 50명은 남았을 것이다.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 밖의 친구들 이름부터 써내려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 나쁜 친구, 좋은 친구

자녀를 지도자급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은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역대 세계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주변의 친구나 동창 관계를 뛰어넘어 여러 분야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

우리 주변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사귀어 보기도 전에, 어떻게 나쁜 친구인지 알 수 있는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얼른 정답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말이 났으니 한번 따져 보자.

공부 못 하는 학생은 나쁜 친구일 것이다. 선생님께 자주 지적 당하는 학생도 나쁜 친구일 것이다. 아파트 평수가 작은 집에 사는 학생도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열거해 나가다 보면 소시민적인 가치관으로 나쁜 친구를 가려 내고자 할 것이다. 무엇이 소시민적인 가치관인가? 눈앞에 확실한 이득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좋은 친구는 누구인가? 부유한 집 출신의 공부 잘 하는 학생,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인가? 시절이 좋을 때 부담 없이 지내기는 좋은 친구일 것이다. 어려움

에 처했을 때도 이들이 좋은 친구로 남아 있어 줄 것 같은가? 그들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보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는 나쁜 친구’ 아닌가?

대학 신입생 시절에 또래들끼리 시비에 말려들어 잠시 경찰서에서 지낸 적이 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그곳에서 공중전화를 한번 얻어 쓰려면 그 허락을 받아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감히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 아닌가?

처음 세 통화는 ‘명문대’ ‘좋은 친구’ 들에게 걸었다. 세 가지 답이 돌아왔다. “그러게 내가 뭐랬니? 정신차리라고 했잖아.” “지금 시간에는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하셔.” “지금 난 돈이 없는데.” 지켜보던 순경이 딱한 생각이 들었던지 한 통화만 더 해도 좋다고 했다.

이번에는 사권 지 얼마 안 된 ‘나쁜 대학’ 다니는 ‘나쁜 친구’에게 걸었다. “어, 알았어. 지금 갈게.” 돈은 좀 있다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 “일단 나가서 알아 보자고.” 필자는 좋은 친구도 좋고 나쁜 친구도 좋다.

역대 지도자들이 지냈던 공통된 지혜는 한눈에 사람을 알아보는 직관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터득하는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관심 아래 사귀어 나가면서, 자녀들이 스스로 깨우치는 길밖에 없다. 안전하기 때문에 잘 아는 친구만 사

귀고,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꺼리는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활동의 범위가 줄어들 것이다. 극소수의 아는 사람들만 상대하는 사회적 자폐증 환자가 되지 않겠는가? 결국 소시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자녀가 친구를 사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친구의 장단점을 물어 보고, 부모의 경험을 전해 주고, 자녀의 안목을 키워 주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와 대화하는 어린이는 설사 나쁜 친구를 잠시 사귀더라도 나빠질 수 없다. 사소한 손해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배운 경험이 훗날에 몇백 배의 가치를 발휘하는 인생의 지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부모들은 새로운 지혜를 훈련시켜야 한다. “여러 종류의 친구를 사귀어 보라.” “여러 친구의 특징과 덕목을 찾아 보라.” “사귀어 가면서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알아 보라.”

## 지도자의 덕목을 가르쳐야 한다

국가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간에 갈등 관계가 지속될 때,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좌시하지 않겠다.” “상대국의 동태를 좀더 파악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

기업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영자가 많다. 해외 진출을 기획하는 자리에서 오랜 보고와 회의가 끝난 후 최고경영자가 말한다. “시장의 동향을 좀더 살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위험 부담이 있으니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확신이 설 때까지 좀더 생각해 보자.”